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왕시전

작자 미상 · 고전 소설·애정 소설
2024년 6월 고1 · G202406H1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목차

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표지·목차	1쪽
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	2쪽
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	3쪽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	4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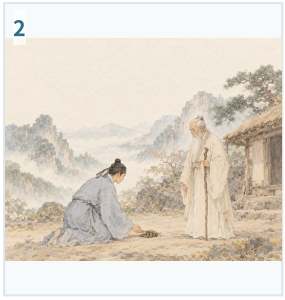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406H1-SR-REV20261022-R3

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암기 그림 1 · 이별과 꿈의 인도 → 도사의 질책과 유예







이별과 꿈의 인도 → 숨긴 소망의 확인 → 도사의 질책과 유예

1. 이별과 꿈의 인도 [1]

왕시와 헤어진 유령은 꿈속 조상의 말을 따라 돈을 준비해 화산도사를 찾고 하루라도 만나기를 청한다. [2]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한 일이라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한다. 최초 발언은 열망의 한계보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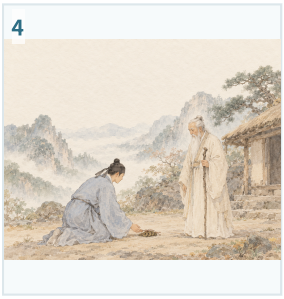
2. 숨긴 소망의 확인 [2]

도사가 진짜 소망을 묻자 유령은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만 불가능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고 밝힌다. 하루만 만난 뒤 헤어지면 더욱 슬프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축소된 소원을 수정하게 한다. 유령이 힘든 노동도 감수하겠다고 답하면서 열망의 강도가 드러난다.

3. 도사의 질책과 유예 [3]

중략 뒤 도사는 뱀과 도적을 살린 일을 꾸짖으며 삼 년간 조심하고 사 년 만에 오라고 한다. 도사는 뱀과 도적이 다른 존재를 해친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을 제한한다. 이는 도사의 가치 판단이며, 모든 생명 구제가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는 원리가 아니다.

암기 그림 2 · 기다림과 의지의 인정 → 유령과 왕시의 죽음







기다림과 의지의 인정 → 조력자들의 소환 → 유령과 왕시의 죽음

4. 기다림과 의지의 인정 [4]

유령이 행실을 삼가며 기다린 뒤 다시 찾아오자 도사는 돌과 쇠보다 굳은 의지를 칭찬한다. 돌도 모래가 되고 쇠도 녹지만 유령의 뜻은 견고하다고 대조한다. 긴 절제의 시간을 견딘 행동을 불변의 의지로 높이 평가하는 말이다.

5. 조력자들의 소환 [5]

도사가 돈을 여러 방위와 공중에 던지자 색깔 옷을 입은 이들과 기이한 존재들이 나타난다. 동쪽·푸른 옷, 서쪽·흰 옷, 북쪽·검은 옷이 대응하며 소환 과정을 구체화한다. 이 구별은 뒤의 생사·이동 명령에서 누가 실행하는지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.

6. 유령과 왕시의 죽음 [6]

도사가 검은 옷의 조력자에게 유령과 궁궐의 왕시를 죽여 오라고 명하고 조력자가 실행한다. 이어 유령을 살리고 왕시 장례를 소원 실현의 조건으로 제시한다. 도사의 계획에서 죽음이 절차의 일부가 되는 역설적 배치이며, 이 문단만으로 왕시도 즉시 소생했다고 볼 수 없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1. 궁녀

뜻 궁궐 안에서 일을 하는 여자

배경 왕시의 궁중 편입이 부부 이별을 낳은 상황이다.

작품 속 쓰임 유령은 아내가 궁녀가 된 뒤 만나지 못함을 호소한다.



2. 일만 관

뜻 돈 일만 단위의 관

배경 큰돈을 마련하는 과정이 조력자를 찾는 준비에 해당한다.

작품 속 쓰임 꿈속 조상이 가져가라고 한 돈이다.



3. 두엄

뜻 거름으로 쓰는 짚이나 풀 등의 썩은 것

배경 고된 노동을 감수한다는 말에 쓰인다.

작품 속 쓰임 유령은 두엄을 지는 사람이 되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한다.



4. 선간

뜻 신선이 사는 세계

배경 인간의 삶과 초월적 세계를 연결하는 설정이다.

작품 속 쓰임 도사가 유령의 이전 죄를 언급한다.



5. 구제

뜻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도와 건짐

배경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가 도사의 질책과 관련된다.

작품 속 쓰임 도사는 불쌍한 존재의 구제와 뱀·도적을 살린 일을 구별한다.



6. 행실

뜻 평소의 행동과 품행

배경 도덕적 시험과 기다림의 과정을 보여 준다.

작품 속 쓰임 유령이 행실을 삼가며 지낸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1. 김유령의 청원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실현하기 어렵다고 여겨 줄여 말한 소원을 도사의 질문 뒤에 자세히 밝힌다.

② 아내의 소식만 알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도사가 유령에게 함께 살도록 강요한다.

③ 도사의 질문을 듣고 하루의 만남이라는 소망을 포기한 채 보상받을 돈을 청한다.

④ 도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자 유령은 자기 소망을 하루의 만남으로 낮춘다.

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지만 도사가 새 목표를 제안하자 동의한다.

2. 두엄과 돌·쇠에 관한 말의 기능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?

① 두 표현 모두 도사가 유령에게 실제로 수행시킨 노동의 내용을 보고한다.

② 도사는 단단한 사물도 변한다고 말하여 유령의 의지 역시 이미 꺾였다고 판단한다.

③ 유령은 감수할 고됨을 말해 열망을 드러내고 도사는 사물과 비교해 인내의 강도를 평가한다.

④ 유령은 두엄을 부귀의 보상으로 요구하고 도사는 돌·쇠를 그 보상으로 대신 준다.

⑤ 유령의 다짐은 성취 뒤의 감사를, 도사의 평가는 최초 방문 전의 예언을 나타낸다.

3. 도사의 질책과 유령의 재방문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?

① 도사의 의지 평가는 유령이 선간의 죄를 모두 직접 기억해 고백한 결과이다.

② 유령은 자신의 판단을 관철하려 즉시 도사에게 돌아가 질책을 반박한다.

③ 도사가 구제의 대상을 문제 삼아 시간을 더 부과하자 유령은 행실을 삼가며 그 조건을 따른다.

④ 재방문은 최초 꿈의 지시만 따른 것이므로 중간 질책은 방문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⑤ 도사는 유령이 생명을 살렸다는 행위 자체를 구분 없이 비난한다.

4. 초월적 존재의 등장과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여러 수행자가 등장해도 구체적인 명령의 출발점은 도사이다.

② 검은 옷의 존재는 도사의 명을 받고 유령과 왕시를 죽이는 일을 실행한다.

③ 푸른 옷의 존재가 유령을 살리는 장면은 현실적 생사의 한계를 넘는 조력을 드러낸다.

④ 돈을 방위별로 던지는 행위와 존재의 출현이 반복되어 신이한 소환을 구체화한다.

⑤ 옷의 색이 다른 존재들이 같은 소환에 응하므로 유령과 왕시를 살리는 역할도 구분되지 않는다.

5. 장례 기한과 귀가 과정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도사는 두 달의 거리를 듣고 석 달 기한을 없애 유령이 장례를 미루도록 한다.

② 도술은 화산으로 돌아올 때 처음 쓰이므로 최초 귀가의 시간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.

③ 장례 담당 관원이 이동을 지휘하여 도사의 조건을 자신이 정한 기한으로 바꾼다.

④ 귀가에 걸리는 시간이 기한 이행의 장애가 되자 도술로 이동 시간을 줄여 조건 수행을 돕는다.

⑤ 스무 날 안의 장례는 도사가 처음 정한 기간과 다르므로 약속을 어긴 결과이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